



# 청년이 머물고 도전하는 공간...논산청년 꿈키움광장 본격 운영

박찬수 기자

2026.01.19 오전 10:10



논산미래광장 전경(논산시 제공.재판매 및 DB금지)/뉴스1

(논산=뉴스1) 박찬수 기자 = 충남 논산시청소년청년재단(이사장 백성현)이 ‘논산 청년꿈키움광장’을 생활권 중심 청년 거점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.

올해부터 본격 운영되는 논산청년꿈키움광장은 청년들이 부담 없이 방문해 머물고, 배우며,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이다. 교육·문화·소통·상담 기능을 아우르는 복합 청년문화공간 역할을 수행한다.

특히 청년 수요를 반영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구성과 자율적인 공간 활용을 통해 청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방침이다.

올해는 △지역사회 문제해결 프로젝트 △1일체험 프로그램(원데이클래스) △지역경제활성화 및 골목경제회복지원사업 △충청남도 청년연합 페스티벌 △청년아카데미 △청년단체 성장 및 교류지원 사업 등 다양한 청년 주도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.

이와 함께 △청년면접정장 및 생활공구 대여사업 △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 △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△청년 결혼축하지원사업 △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등 청년 삶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사업도 추진한다.

총 28억 536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논산청년꿈키움광장을 중심 거점으로 청년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 체감도를 제고할 방침이다.

논산청년꿈키움광장은 소규모 모임부터 청년들 간의 네트워킹 행사까지 폭넓은 활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했으며, 이를 통해 단순한 시설을 넘어 청년활동의 거점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.

논산청년꿈키움광장은 커뮤니티룸, 세미나룸, 공유오피스 등을 갖추고 있으며, 논산시 청년(18~45세)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.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, 주말 및 공휴일은 휴관한다.

pcs4200@news1.kr

☞ <https://www.news1.kr/local/daejeon-chungnam/6043172>